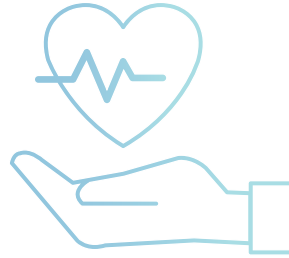


함께 취재해야 하는 이유



KBS 원주

김영준 기자



2026년 4월6일 오후 5시쯤.
저녁 밤샘 근무를 앞두고 집에서 사무
실로 운전을 시작했다.

도로는 차들이 많았다.

좌회전 차선으로 바꾸지 못해 평소 익
숙한 출근길이 아닌 도심 변화가를 가로
지르게 됐다. 200미터 앞 한 교차로 근처
에서 구급차와 경찰차 모습이 보였다.

나는 복잡한 도로와 출근길의 분주한
마음에 교차로 전 갈림길에서 좌회전했다.
하지만 느낌이 개운하지 않았다. 뭔가 찝찝
한 축(?)이 느껴졌다. 그래서 차를 돌렸다.
경찰차가 보였던 교차로 쪽으로 향했다.

10분 정도 지나 도착한 곳에는 교통사
고 수습이 한창이었다. 사람들이 걸어다
니는 인도 뒤쪽 아릅드리 소나무를 사설
구급차가 들이받았고, 또 조금 떨어진 곳
에는 승용차 1대가 벗어나 가로수를 들이
받아 넘어지기 직전 상태였다.

119구급대원들은 사설 구급차 주변에
서 긴박하게 다친 사람들을 이송했다. 들

것에 실려 가는 사람 중에는 작은 체구의
남자도 있었다.

나는 정신 없이 오가는 경찰과 소방관
대신에, 한쪽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사
고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젊은 남녀에게
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의 김영준이라
고 하는데요. 혹시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보셨어요?”

내가 물었다.

“저 사실 구급차가 인도를 걷던 학생
을 치었어요. 소방관이 막 심폐소생술하고
그랬는데…”

젊은 남자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말끝
을 흐렸다. 그리고 내게 자신의 휴대전화
에 담긴 소방관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짧은 영상을 보여줬다. 나는 그 영상을 재
빨리 확보했다. 이어 현장에 있는 경찰관
에게 다가가 물었다.

“경찰관님, 몇 명이 다쳤나요?”

내가 사고 현장 담당 지구대 경찰관에
게 물었다.

“4명이 다쳤는데요. 아이가 차에 치였어요.”

경찰관이 대답했다.

“아이는 많이 다쳤나요?”

내가 다시 물었다.

“중학생인데, 심정지 상태였어요. 심폐 소생술을 하면서 이송했는데…”

경찰관이 대답했다.

사고는 날벼락 같았다.

차선 신호 위반을 한 사설 구급차와 직진하던 승용차가 충돌했고, 사고 충격으로 사설 구급차가 인도로 튕겨 나가면서 중학교 남학생 1명이 숨진 것이다.

날벼락이었다. 남학생은 학교가 끝나고 혼자서 학원으로 걸어가던 인근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다. 사고 차량 운전자들도 다쳤다.

나는 즉시 촬영 기자에게 연락해 현장 취재를 이어갔고, 사무실 후배 취재 기자에게 사고 1보 기사 작성과 관련 팩트 확인을 부탁했다.

현장 취재를 신속히 마치고 사무실에 도착해 뉴스 제작을 시작했다. 뉴스 화면 편집 과정에서도 가슴이 먹먹했고, 최대한 자극적이지 않은 장면들을 선택했다. 그리고 KBS 9시 뉴스에 보도했다.

9시 뉴스가 방송되자 여러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한 교장선생님은 아이가 다니던 학교



가 어딘지 묻기도 했고, 어느 시청자는 사설 구급차의 과속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며 제보하기도 했다.

짧은 시간 정신없는 취재와 제작을 마치고, 밤 근무를 이어갔다. 내가 제작한 뉴스가 심야 뉴스와 다음 날 아침 뉴스에 연이어 보도됐다. 2, 3시간 동안 유튜브 조회수 40만 회라는 이례적 관심도 받았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이 묵직했다. 나도 중학교 2학년 딸아이가 있기 때문이다.

딸아이라도 그 근처 학원에 다니고 있다.

그 아이를 덮친 아픔이, 그 아이 부모님의 아픔이 나의 일 같지 않았다.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벌어진 황당하고, 비극적인 교통사고가 계속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밤샘 근무를 마치고 나는 회사 근처 꽃집에서 국화 한 다발을 사서 포장했다. 그리고 사고 현장으로 갔다.

현장은 어제와 달리 조용했다.

자동차 파편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다. 나는 숨진 학생이 쓰러졌던 자리에 국화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취재기자 18년, 그중 사건기자만 10년

을 했다. 수많은 사고와 재난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직접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고개 숙였다. 아이의 명복을 빌었고, 하늘에서 고통 없이 행복하게 지내라고 속으로 염원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유가족에게도 평안을 기원했다.

나는 밤샘 근무로 인한 피로를 뒤로한 채 서둘러 원주시청 교통행정과로 갔다. 사고 현장의 안전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무언가 분명 사고의 구조적 원인이 있을 것 같았다.

강원도 원주 최대 변화가에 안전 시설물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취재했다. 교통안전 시설물 법규가 무시됐거나 안전시설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묻고 물었다. 원주시 공무원들은 곧 교통 기관 합동 점검이 예정돼 있고,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다음 날, 나는 아침 일찍 사고 현장으로 갔다. 사고 현장에는 어느새 수많은 국화가 놓여 있었다. 과자와 음료수, 고인의 명복을 비는 작은 편지들도 함께 있었다. 날벼락 같은 사고 소식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뉴스 보도의 영향이 컸던 점도 있다. 그리고 원주시와 경찰,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나와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지구대 경찰관도 있었다. 그도, 나도 서로를 알아보며 목례했다.

“기자님, 이런 때는 경찰이란 직업도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경찰관이 내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관도 사고 당시의 참혹했던 모습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음이 분명했다.

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그리고 나 스스로 생각해 봤다.

‘이런 때는 기자라는 일도 좋은 직업은 아닌 걸까?’

합동 점검으로 경찰은 해당 지점에 과속 금지와 차선 준수 등의 안전 표지판을 보강해야 한다고 원주시에 통보했다.

시설 미비보다는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원주시는 곧 안전 표지를 보강할 계획이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었다.

KBS 원주에 주재하는 기자는 3명이다. 입사 18년차인 나와 입사 10년차 후배 취재기자, 7년차 촬영기자이다.

사건 사고 담당, 행정 담당, 기획 담당 등 모두 구분이 없다. 함께 상의해서 함께 취재 제작한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한다. 3명이 서로가 도우며, 서로 챙기며 일하고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나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후배 기자에게 사고 장소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사고가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을 부탁했다. 후배가 데이터 분석에 능통하기 때문이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를 막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걸까?

왜 미리 사고를 막지 못했을까? 단순 교통사고로, 구조적 문제는 없을까?

서로 논의를 이어갔다.

나는 다시 원주시청 도로과로 갔다. 도로 안전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사고가 난 곳은 2019년 흔히 ‘볼라드’라고 불리는 횡단보도 안전말뚝이 철거된 곳인 것을 알게 됐다. 당시에는 보행자나 장애인, 자전거 이동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말뚝을 없앴다고 했다.

원주시의 정책이 아니라 당시 정부의 정책으로 시행됐다고 한다. 만약 안전말뚝이 있었다면 이번 사망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까? 사고 장소나 충격 상황을 봤을 때 막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됐다.

현재까지는 원주시 사고 현장 교통 안전시설 보강 계획과 경찰의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계획 등 사고 이후 후속 조치를 보도했다.

우리팀은 여기서 멈추지 말자고 다짐하고 있다. 동료 2명과 함께 원주시를 포함한 강원도 전역의 사고 잦은 곳에 대한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도할 것이다. 부족한 인력 상황은 AI(인공지능)로 보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나는 KBS 원주방송국 국장실로 향했다. 봄철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자고 제안했다.

강원도 원주는 37만여 명,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 이 가운데 외



지에서 직장과 공사 등의 업무로 수도권이나 인근 지역에서 오가는 유동 인구가 늘고 있다. 또한 차량 보유 대수가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었다. 사고를 막기 위한 수많은 안전시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안전운전을 하는 운전자 의식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 사고가 난 사설 구급차는 사고 당시 우회전 차로를 주행하면서도 직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차량의 속도 역시 제한속도인 시속 90km를 크게 뛰어넘는 과속 상태였다. 또 다른 사고 차량인 승용차 역시 직진 신호가 끝나고 난 뒤 교차로로 진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 어떤 시설보다 교통안전을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껴졌다.

“나 하나쯤이야, 매번 지나갔는데...”



이런 의식 탓으로 우리 사회는 미리 막지 못한 비극적 사고의 경험에 많다.

12년 전 세월호 참사가 그랬고, 2022년 이태원 압사 사고,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이 대표적이다. 강원도에서도 산사태, 부주의 산불, 고속도로 다중 추돌 등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그때마다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인데도 막지 못했다는 크고 작은 후회를 남긴다.

이번 중학생 사망 사고 역시 마찬가지이다.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어려움이 크다는 현실 속에 질서 의식은 최상의 예방책이다. 그리고 사고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기자라는 책무에 대해서도 되돌아본다.

“기자란 직업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닌, 사회의 안전, 신뢰를 위해 걸어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자신을 위로한다.

후배 2명과의 티타임. 한 후배가 고심

을 거듭하는 내게 말한다.

“선배, 어쩌면 우리 팀의 고민이 아직 정확히 어떤 답을 찾지는 못했어도 그 방향으로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또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거고요.”

후배 역시 깊은 고심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취재를 계속하고, 열의 가득한 고민을 이어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리 막지 못했다는 슬픔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할 것이다.

산불, 사건 사고, 선거, 축제, 지역 행정 등등 많은 일들이 놓여 있다. 그럼에도 오늘도 소중한 동료 2명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길을 걸어간다.

계속 걸어가야 하는 길이고, 그렇기에 함께 해야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

KBS원주 김영준 기자